

# 안전으로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삶의 터전 건설



한국노스케스코그(주) 전주공장



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전통의 도시 전주, 전주 IC를 빠져나가며 본 기와로 덮여있는 톨게이트가 참으로 인상적이다. 종이박물관이라는 이정표를 따라 찾아간 곳은 한국 노스케 스코그(주) 전주공장, 이곳 전주 와는 웬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회사명과는 달리 종이박물관이 바로 그 공장안에 있었다. 공장에 들어서자 눈에 띄게 잘 조성된 잔디밭과 분수, 커다란 소나무밭 등은 마치 이곳이 공원이 아닐까 하는 착각이 들 정도로 여느 공장의 회색빛 일색의 건물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다.

## ■ 한국노스케스코그(주) (Norske Skog Korea co.,ltd.)는..

신문용지부문 세계 1위인 노르웨이 노스케 스코그의 한국 내 자회사로서, 국내 신문용지 수요의 45%를 공급하고 있으며, 40만 톤 이상을 대부분 아시아 여러 국가로 수출, 출판용지 시장에서도 꾸준한 점

유율을 유지하고 있다. 또한 “환경경영”이라는 기업이념에 따라 폐지의 재활용뿐만 아니라 발생 폐기물 100%처리 등 환경 관련 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, 지난 1990년 이래로 환경 오염 방지시설에만 800억 원 이상의 투자를 해 온 친환경기업이다. 신문용지, 그린 종질지 등 모두 6개의 제품에서 환경마크를 획득했으며 환경 보호 캠페인 등에 기울인 노력을 인정받아 제조업체로는 보기 드물게 환경관리 모범업체로 이미 6번이나 지정되었으며 환경의 날에 대통령 표창을 받기도 하였다.

## ■ 안전, 최우선 경영을 통한 안전하고 행복한 삶의 터전 건설

이곳의 안전관리총책임자로 있는 김영재 공장장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모두가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삶의 터전으로써의 무재해 공장 구축을 목표로 정하고 있을 정도로 안전에 대한 신념은 남다르다. 전주공장은 종이 제조업 특성상 안전 및 화재사고의 위험에 항상 노출되는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국내 제조업 평균 재해율의 1/10도 안되는 최고 수준의 안전을 유지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러한 그의 의지에서 나온 결과라 할 수 있다. 아무리 완벽하고 좋은 안전시스템이라 할지라도



이를 지키려는 의지 없이는 무용지물에 불과하다고 강조하는 그는 “나부터 기본 지키기”의 슬로건을 통해 자율안전활동을 유도하고,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. 이는 곧 무재해를 통해 경쟁력 있는 전주공장을 만들기 위한 기초가 될 것이며, 궁극적으로는 내·외부고객을 동시에 만족시킴으로써 행복한 삶의 터전으로서의 한국노스케스코그를 건설하는 길이라 믿고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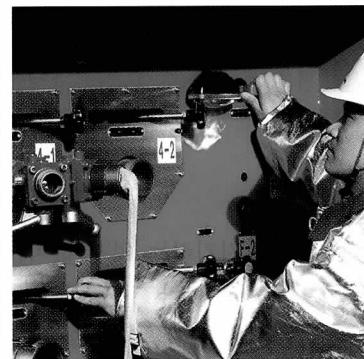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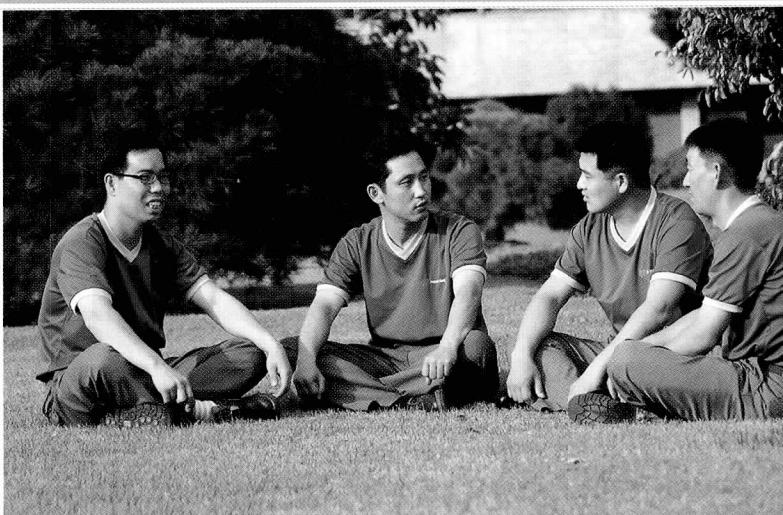
### ■ 장치산업에 따른 위험요소와 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

주력상품으로 신문용지를 생산하고 있는 한국노스케스코그(주) 전주공장은 주원료로 재활용 폐지를 사용하고 있는데 재활용 비율이 95%에 달하고 있다. 적재된 폐지를 가공하여 원료를 생산하고 탈수 공정을 거쳐 신문용지를 생산한 후, 이를 제품으로 포장하는 공정으로 나눌 수 있다. 각 공정은 거대한 기계 사용에 따라 회전체에 대한 위험요소나 고소작업에 따른 추락위험, 전도위험, 각 공정 및 폐지 재활용에 사용되는 화학약품 사용에 따른 위험 등은 자칫하면 대형 사고로 연결될 수 있는 환경에 있다. 이러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각종 방호장치는 물론, 경보장치나 위험표지 부착, 엠보싱 타일의 설치, 경보시스템 및 차단시스템 설치 등 빈틈없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

다. 뿐만 아니라 대량의 종이를 사용하고 있어 화재에 대한 위험이 여타 다른 산업에 비해 높은 편이라 대형 화재에 대한 철저한 방어시스템을 갖추고 있다. 한 달에 약 70~90여회에 달하는 모의훈련이 각 과별로 실시되며 연 1회 관내 소방서와 협동으로 종합소방훈련을 하고 있다. 공장외부에는 약 109개의 소화전이 설치되어 있고, 자체적으로 대형 소방차 2대를 확보하고 있으며 인근지역화재시 지원도 아끼지 않고 있다.

### ■ 철저한 안전점검과 교육훈련, 그리고 Near Miss 관리

이곳에서는 매월 4일, 14일, 24일 3번에 걸쳐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다. 4일은 공장을 비롯한 임원, 안전관리자, 전문위원 등 10여명으로 구성된 점검팀이 전 공장에 대해 안전점검을 펼치고 있고, 14일은 5개 팀이 팀별로 각 팀 소속 공정을



점검한다. 24일에는 24개의 각 과별로 역시 해당 소속 공정을 점검함으로써 다양한 시각에서의 불안전 요소를 점검하고, 점검일지를 작성하여 발견된 문제점은 각 과, 팀, 안전섹션부서의 공조로 해결해 나가고 있다.

또한 매일 모든 근로자는 10 ~ 15분 정도 일찍 출근하여 6 ~ 8명으로 구성된 반을 중심으로 당일 이루어질 공정에 대한 위험성 부분, 근로자의 건강상태 체크, 전 작업조에서의 특이사항에 관해 TBM을 실시하고 있다.

2004년 8월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Near Miss 관리는 현재 약 7,290여 건의 사례를 도출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매주 Top 5를 선정, 조치사항을 작성하여

간부 확대회의에서 발표한 후, 도해를 작성하여 현장에 배포하여 이를 교육시키도록 하고 있다.

### ■ 무재해 사업장 구현을 위한 한국노스케스코그의 도전

이곳 한국노스케스코그(주) 전주공장에서는 매년 안전관련 투자에 8 ~ 10억원을 투자하고 있을 정도로 안전이 갖는 의미는 특별하다. 동종업계 대비 재해율 1/10을 기록, 최근 11년간 화재사고 미발생 등 그동안의 노력들이 작은 결실로 나타나고 있다. 하지만 세계최고봉인 에베레스트 산이 그렇듯 안전은 노력 만으로 오를 수 없는 산인 것이다. 2007년까지 무재해 790일을 목표로 힘차게 나아가는 한국노스케스코그(주) 전주 공장, 세계 최고의 친환경기업, 일할 맛 나는 안전한기업으로 나아가길 기대해 본다. 

〈임재근 기자〉